

거주지 문화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댄스 기능 연구

황 정 옥*

목 차

Abstract	III. 관계 계승의 커뮤니티댄스와 거주 문화 공유
I. 서 론	IV. 결 론
II. 거주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사회	참고문헌

Abstract

A study on the functions of community dance for residential culture sharing

Hwang, Jeong-ok · Kyungsoong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value of modernity resulted from capitalism and liberalism and the problems of a city and society as residential space created by the blindness of contemporariness. The movement of internalization and globalization based on the power of vast capital has deterritorialized human life space, and it has facilitated the growth of an enormous city as either extended or eliminated with the common elements of a city as the ground. While the taste and consciousness of a community, the existential being occupying the city and town, is disregarded, the myth of the town has been diluted. In the space of a city ruled by individual desire, residents' historicity and a community's identity are no longer crucial value. This therefore means discontinuance in relations.

The problem of discontinuance in cultural relationship can be settled down when we practice culture sharing as the succession of relations through the process to revitalize the myth of a town. The succession of relations is to share a town's historicity, and culture sharing is the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외래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전공 박사과정
논문투고일: 2013. 7. 20. 심사일: 2013. 8. 20. 게재확정일: 2013. 9. 5.

very effort to revitalize community.

Thus, community dance for residential culture sharing comes to have functions to reflect the historicity of various time points based on the placeness of a city and town from the temporal perspective and also to revive community through culture sharing as the practice of participating in artistic experience from the spatial perspective. In others words, it comes to play roles in revitalizing residents' consciousness and happiness eaten up by modernity and contemporariness represented with capitalism and liberalism. It is because a city community's recovery means reviving the existential aspects of a community well polished with value and belief that have been formed spatially as well as temporally.

key words: relationship, culture sharing, community dance, residential culture

주요어: 관계성, 문화 공유, 커뮤니티댄스, 거주 문화

I . 서 론

고대의 공동체 사회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관계성이 명확했다. 그러나 근대 사회를 지나면서 사적 욕망이 넘쳐나고 거대 자본의 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한편 공적 영역이라는 명분으로 공간의 질서는 획일화 되거나 무분별하게 펼쳐졌다. 그곳에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던 실존적 존재자들이 형성한 역사적 흔적인 문화 지층이 파괴되면서 영토의 개념은 사적 공간을 넘어서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은 community arts에도 영향을 미친다. 참여와 소통의 명분에서 맥락성이 결여된 거주 공간으로서의 마을 형태가 예술적 공간의 형태로 탈바꿈되면서 즉시적 만족과 행복을 위한 체험의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사적 욕망과 거대 자본의 힘이 합쳐진 재개발을 통해 행복한 삶의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커뮤니티댄스는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그들의’ 시각이 아닌 ‘우리들의’ 시각에서 대칭적인 상호소통을 지향하며 예술적 상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이끈다. 무용이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은 예술의 공공성을 찾는 것이라 믿었던 시대에서 교육으로 혹은 사회적 참여의 실천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도시와 마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모습도 기록되어지는 모습도 다르다. 그것은 마을이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동력은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가치와 의식이다. 마을이라는 공간과 소통하면서 생산해낸 문화적 흔적들이 지워지고 있는 것은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이므로 무용 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공동체성과 역사성을 발견하

고 인식한다는 것은 사회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식의 전환은 관계성 회복을 위한 community dance 실천 활동으로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적 욕망, 경제적 욕망이 잠식한 도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능으로 거주자 문화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댄스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커뮤니티댄스는 예술적 상상을 통해 사회적 만남을 지속하면서 사회와 소통하는 행동을 촉진하는 의식의 전환에 초점을 두는 오늘의 무용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가치와 상관 없는 도시 공간의 현대성은 의식을 잠식시키고 때로는 즉시적 만족과 행복감을 위한 체험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는 문화 단절을 의미하는데 문화 단절은 시·공간적으로 동시 진행되는 성질이 있다.

문화 단절의 문제는 문화의 관계 계승-역사성-으로 해결 가능하고, 도시 혹은 마을이라는 거주 공간에서 문화적 자산과 흔적을 발견하고 재생산해내는 문화 공유-공동체성-가 방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커뮤니티댄스를 통한 의식전환의 시작점은 거주 공간 문화의 역사성과 공동체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거주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커뮤니티댄스의 기능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II . 거주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사회

오늘 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라는 공간에 거주한다. 도시란 무엇인가. 빛나는 도시는 초고층 아파트의 전형적인 모델로 우리 도시의 지향점이 되기도 한다. 전원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쾌적하고 여유로운 신도시의 이상이다(정석, 2013: 258).

Le Corbusier가 제안하는 빛나는 도시radiant city의 이미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초고층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과 유사하며 Howard E.는 공해에 찌든 도시 대신에 교외에 도시와 전원의 장점을 두루 갖춘 새로운 도시 즉, 전원도시garden city 건설을 새로운 도시 모델로 제시하여 영국에서 실행되었다. 그리고 Burnham Daniel H.은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ul movement¹⁾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예술적이고 조형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

1) 1893년 미국 시카고 무역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는 인구 급증, 도심의 슬럼화, 열악한 주거환경, 그리고 교외지역으로의 무질서한 공간 확산 등의 도시 문제 발생의 해결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거기에는 유럽 도시들에 비해 역사적, 문화적 깊이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근대

해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도시미화의 관점이다. 이와 같은 도시에 대한 이론들은 산업혁명 이후 형성된 도시의 지향점을 제시해 준다.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자본주의의 등장은 자본주의의 효율성에 부응하는 주거 공간으로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노동대신 자본이 경제시스템의 투입요소가 되면서 커다란 자본에 많은 것들이 잠식당했기 때문이다. 자본의 힘이 도시 경관을 잠식하는 모습은 일상에서도 발견되는데 맥도날드와 아웃백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그 사례이다. 어느 순간 프랜차이즈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 짓는 지표가 되었다. 바쁜 도시인들에게는 주문 즉시 조리된 음식이 나오는 것이 삶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표 중 하나였다. 거대 한 자본의 힘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똑같은 미각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음식문화의 새로운 변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 세계의 도시 경관을 획일화 시킨 원인을 제공하였다.

Kant 이후 시장 경제시스템에서는 가치보편성이 등장하였고 이때, 자본이라는 것은 중립적 가치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인 매개체였다. 돈이 교환의 가치로 자리매김하면서 누구나 획득 가능한 것이 되었고 교환에는 가치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 가치를 가진다. 자유주의가 등장한 후 인간은 무한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던 시대는 사라지게 되었다. 파편화된 개인의 욕망이 세계를 덮어버리면서 공동체 가치가 우선하던 시대와 다른 형태로 거주 공간을 전도시켰던 것이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있어 개인의 기준에서 중심이 되는 것 이외의 것은 배타 되었다.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에 의해 환경은 편리와 효율을 기준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결국, 세계는 비대칭적인 구조에 익숙해졌고 영토 확장을 꾀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동일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공간과 환경은 점점 획일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제국주의적 식민주의 쇠퇴기에 경제 사회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한다. 이른바 이념을 바탕으로 세계를 두 축으로 나누었던 권력 중 하나인 동구권의 붕괴는 세계를 단일한 경제 체제로 만들었다. 더 큰 자본의 힘이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것이다. 기술 집약 산업으로 시장 경제가 재편되면서 자본의 힘을 가진 다국적이고 초국적인 기업들은 자신의 영토(국가, 세계)가 아닌 곳으로 관심을 돌렸다. 산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국가는 산업중심 시장의 한계상황에 직면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제 3의 국가에서 기본비용²⁾절감을 추진했다. 전 세계가 자신들의 소비시장이자 재화를 생산

미국 도시의 ‘유럽 도시 닮기’의도가 은근히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임에는 틀림없다(서정렬, 김현아, 2008: 17~18)

2) 고정비용인 자본capital보다 변동비용 즉, 인건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하는 것이다.

하는 시장이 된 것이다. 해외 이전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 노동자들이 ‘수익’이라는 신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예언자들의 설교에 감화되어 이내 대안은 없다는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처지가 됐다. 현대성과 자유 공정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은 고통에 시달렸다(Rothe, B. Mordillanr, G., 2013:79).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의 공간이 변화해 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변환된 일상에 빠르게 적응해야 했다. 삶의 공간은 문화를 생산해 내는 곳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를 소비하는 곳으로 탈바꿈되었다. 일상의 곳곳에 파고든 공간을 소비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공동체의 의식과 가치가 만들어낸 공간의 고유성은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과학, 예술과 같은 문명의 문화적 자원과 관련해 그 특성이 실행되는 의미는 거의 무시되었다. 자유주의의 위기와 개인의 해방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재 고찰의 필요성이 가장 분명해 지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현재 문화적 가치의 희생을 대가로 만연하는 물질과 물질 경제의 과도함 그 자체는 초기 자유주의의 결과”(Dewey, J, 2011:55)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환경과 관계성 속에서 문화를 생산해 낸다. 때로는 환경에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그 환경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환경은 변화하고 진화하게 된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인한 공간(환경)의 획일화 이면에는 개인이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형성은 소홀하게 여겨졌다. 따라서 공동체의 가치를 담고 있는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지닌 장소는 해체되기 쉬운 것이다.

사람들은 글로벌을 지향하는 동시에, 민족 국가가 인종, 민족, 종교, 지역, 라이프 스타일의 선호에 따라서 분화되는 것처럼 로컬에도 초점을 둔다. 사람들은 로컬의 맥락 속에서 글로벌의 생산물을 해석하는데 이는 지역마다 다르게 드러난다 (Victoria D. Alexander, 2010:309).

우리가 글로벌 세계를 꿈꾼다 하더라도 세계가 완전히 하나의 틀로 묶여 질 수 없다. 사람들은 세계화, 지구화 세계에서 ‘재영토화³⁾’를 통해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 도시의 모습이 재탄생될 것을 희망한다. 근래의 세계화, 지구화가 문화적으로 탈영토화를 부추겼다.

상업주의 사회, 정보화 사회가 도래되면서 개별적인 고유성을 지니고 있던 문화 생산과 소비는 파편화되어 다른 문화의 수용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즉 정체성이 불확실한 문화로 형성되었다. M. McLuhan이 1968년 지구촌 global village이라는 개념을 제시

3) 프랑스 철학자인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용어

한 후 세계의 문화들은 점차 다층화되고 혼합되며 병치되었다(Young, Robert, J.C., 2013:185). 결국 글로벌 문화는 지역의 문화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흡수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는 획일화되는 문제에서 비켜 서게 된다하더라도 이질적인 문화, 파편화된 문화,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잡종의 문화가 형성되는 위험성을 안게 된다. 결국 지역을 기반으로 글로벌 문화가 재해석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과 역사성이 뒷받침되는 문화 역량이 필요하다. 지역성locality의 발견은 지리적 범주로만 국한될 수 없는 것으로 오늘 날의 공동체는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과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슈와 가치, 연대 의식,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정체성인 지역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살아있는 현재의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Kevin Lynch는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를 조사, 발표했는데 구획district, 랜드마크landmark, 통로path, 결절node, 경계edge등이 그것이다(서정렬, 김현아, 2008:101).

모든 도시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공간적 범위인 구획, 장소와 장소를 연결지어주는 통로,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인 결절, 자연 지형이나 특정 시설물에 의해 확연히 구분되는 끝단인 경계는 우리 일상의 도시 모습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요소이다. 그리고 도시를 상징하는 주요 시설인 랜드마크⁴⁾는 도시의 요소 중 경계에 포함될 수도 있다.

도시가 갖추고 있는 요소는 동일하더라도 도시 속에는 그 곳을 점유하고 있던 공동체 문화의 흔적이 자리 잡고 있다. 도시의 요소들은 우리들의 심상 지도 mental map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개인의 편의적인 기억에 근거한 것이지만 공간 인지의 기억은 마음속에 오래도록(서정렬, 김현아, 2008:102)남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상이 영위되고 있는 장소인 학교, 집을 기준으로 마을의 공간 구조와 형태를 그려보는 약도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약도는 자신의 행동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 진다. 이때에 구획, 경계, 통로 등이 약도에 담겨지지만 공간과 주요시설은 단순히 물리적, 기능적으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가 약도 속에 담겨지기 때문이다.

오늘 날 빛나는 도시, 전원 도시, 예술품으로서의 도시를 추구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현대성의 상징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거대하고 화려하게 변화는 도시의 모습에 압도되어

4) 도시의 형태가 획일화 되어가고 있지만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통해 도시 문명의 상징성을 드러내 보이려는 도시성urbanism의 한 단면이다.

현혹되는 것이다. 개인의 삶이 도시의 강렬한 장관에 비겨 서게 되면 현대성의 흐름에서 이탈된다는 환영에 빠지게 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을 하나의 패턴으로 다시 엮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적 욕망의 현상이다. 현대성의 상징으로 불리는 초고층 아파트에서 도시의 조망권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삶이 여유롭다고 여기고 싶은 개인의 욕망일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 욕망의 공적 제어를 통해 Jacobs J.⁵⁾가 주장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와 도시를 생명체로 키우고 가꾸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제이콥스는 현대 도시의 특징을 엄격한 용도 분리 zoning, 차량 위주의 도로 체계와 슈퍼 블록 super block형 도시 구조, 그리고 도시 교외 지역의 택지 개발로 인한 전통적인 도시중심부의 쇠퇴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몇 가지가 도시공동체를 해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활기 넘치는 거리와 이웃과의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서정렬, 김현아, 2008:57).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도시가 급격히 팽창되고 획일화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내러티브 narrative가 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인 도시의 모습이 생경하게 살아있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획일화되어 버린 도시의 모습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희석시켜버리게 된다.

어디에나 같은 모습만이 있을 뿐, 각 공간이나 장소의 고유한 특성이 없다면 다양한 삶이 주었던 조화, 자유, 여유로움이 퇴색해가면서 개인도 점차 소멸해간다. 심지어 집단의 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집단의 힘으로 개인의 욕망을 억압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장소성이나 공간성의 사라짐은 단지 장소성이나 공간성 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도 소멸함을 의미한다(박승규, 2011:80).

똑같은 도시라 할지라도 그 모습이 달리 드러나는 것은 그곳에 터전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온 개인의 역사와 공동체의 역사적 흔적이 잔재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시의 정체성과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은 도시가 아니라 사람인 것이다. 동일한 공간에 살아가면서 개인 혹은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하였던 삶에 대한 의식이 공간이라는 환경을 바꾸기 때문이다. 일련의 사례로 슬로우 푸드 slow food 운동은 이탈리아 사람⁶⁾들이 그들

5) 1961년 Jane Jacobs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을 출간했다. 여기에서 제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도시는 빛나는 도시도, 전원도시도, 예술품과 같은 도시미화도 아니라고 한다. 도시에는 생명을 이어 온 역사가 있고 또 생명들이 이뤄낸 문화가 있기에 도시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작은 블록, 오래된 건물, 복합용도, 집중을 제시한다(정석, 2013: 256~260).

6) 로마의 유명한 식당 Piazza d' Espania 근처에 맥도날드가 들어서면서 Carlo Petrini를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

의 고유한 맛을 지키기 위해 맥도날드에 대한 반대에서 촉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공간이 잠식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신들의 장소에 부여하고 있는 장소의 의미(장소성 placeness)를 희석하고 훼손하는 것(비장소성 placelessness)에 분노했기 때문(박승규: 2011:78~79)이기도 하다.

거주 공간으로서의 도시는 생활 터전이므로 마을이자, 동네로 우리의 일상에 위치된다. 마을이라는 공간은 상징적인 곳이다.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지 아니면 어느 순간 이주해서 살아오던지 그 곳의 골목과 건물, 자연 경관에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일상이 함께 남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기억과 더불어 추억 속의 감정들이 야기된다. 비록 도시 계획에 따라 일부 도로나 건물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원형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개인 혹은 집단의 기억으로 상징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이는 마을을 이루었던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상의 경험이 동일한 문화적 패턴 즉, 고유한 문화 지층이 형성된 것이다.

탈근대화 사회가 형성되면 우리는 개별성과 다양성이 존중 받을 것이라 여겼으나 마을의 다양한 역사성은 현대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더 이상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도시라는 공간은 재건축 혹은 재개발로 탈바꿈되어 왔다. 즉 공간의 기능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된 것이다. 보다 편리한 곳, 보다 깨끗한 곳, 보다 현대화된 곳이라는 기능적인 부분에 역점을 두고 도시, 마을의 모습에 새로운 모습을 덧씌웠다.

맥루한은 지구촌에서 문화적 민주주의를 위해 문화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접촉을 강조하는 동시에 어리석은 상업주의적 접촉의 방지를 위해 문화의 진실한 접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한혜리, 2013:21). 진실한 문화 접촉을 위해서는 도시공동체가 되살아나야 한다. 도시와 마을은 그곳에 살아왔던 존재, 즉 실존적 존재인 그곳을 점유하고 있던 공동체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적 욕망, 경제적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 날의 도시로서의 거주 공간은 공유된 가치, 신념,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를 통해 탈영토화⁸⁾의 문제는 극복될 수 있다.

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사동에 입점한 스타벅스가 인사동 거리의 고유성을 저해한다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고 간판을 한글로 내거는 선에서 정리가 된 바 있다. 과거의 역사성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 외부에서 무분별하게 잠식해 들어오는 자본의 힘에 대한 거부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사동 거리는 인사동이라는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공간이자 장소로 인식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8) 지역의 정체성을 지닌 문화가 아니라 획일화 되거나 파편화된 문화로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에게는 이질적이거나 잠종형태의 문화적 양상

III. 관계 계승의 커뮤니티댄스와 거주 문화 공유

인간의 소유 욕망이 만들어낸 문화 현상 중 하나가 도시를 탈영토화의 공간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소유 욕망이 개인과 사회, 사회 구조의 관계망을 끊고 관계성을 단절시켰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삶에 가까이 다가서기보다 시장경제에서의 부의 축적, 즉 공간 소유와 공간을 끊임없이 지우고 새롭게 구축하고자 했던 현대성에 대한 욕망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함으로써 드러난 환경 변화가 오늘 날 도시이다.

Emile Durkheim과 Alfred Radcliffe-Brown은 문화는 자체 동력으로 진화하는 초유기체가 아니다. 오히려 문화적 변화는 사회적 존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무수한 인간들의 개별적인 행동 반응들의 통계적 산물이라 보았다.(Osborne Edward, W., 2011:107)

공동체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개인의 그릇된 공간 소유 의식은 도시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공간과 장소로 구성된 도시에는 신화가 자리 잡고 있다. Kerenyi K.는 신화에는 우주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같이 스며있으나 신화는 초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을 표상한다는 입장을 취한다(김용석, 2010:73)고 보았다. 인간은 문화적 틀이 만들어 지는데 관여하기 때문이다. 공간에 스며든 삶의 흔적은 하나의 문화적 양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곳에 실존하고 있던 존재들이 만들어 낸 문화 지층은 어느 순간 마을의 신화이자 역사가 되고 신화는 각 지역(공간)마다 다르게 드러나면서 지역성을 공고히 한다. 그러나 근대사회의 가치는 도시를 지우고 덧입히는 과정에서 도시와 마을의 지역성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렸다.

문화는 자연과 구별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존재 ‘양식’, 그러한 의미로서의 문화를 사회와 시대에 따라 관찰할 수 있는 인위적 표현의 ‘차별성’, 그리고 정신의 ‘내재적 가치’를 말한다(박이문, 2009:158).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가치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의 행동은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고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는 인간 행동에 있어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이끈다. 바람직한 인간상이란 가치판단이 함의되었다면 문화는 정신의 내재적 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는 단순히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귀한 정신적 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다(박이문,

2009: 161). 도시 사회에 있어 귀한 정신적 표현이라는 것은 도시가 만들어 놓은 역사성 속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존재자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공동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이어가는 의식이다. 경제적 욕망, 사적 욕망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들의 시선으로 문화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술은 인간다움을 찾는 탐구의 과정이고 스스로를 반추할 기회를 준다.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문화적 실천에 있어 내재적 가치를 실천할 때 발견할 수는 것으로 예술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바깥에 있는 외적인 욕망에 함몰되어 존재의 고유성을 잃게 되는 사회적 위계로부터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존재의 위치를 찾는 데 기여하는 것이 예술과 문화이다. 개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의 존재 즉, 정체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게 된 역사성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Herder, J는 나라마다 환경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사를 갖게 되었다고 본다. 인간 정신 구조의 산물로서의 역사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경이기 때문이다. 환경의 지배에 놓이게 되는 개인의 행동은 의식의 전환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Spencer, H는 사회가 개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해 사회가 변화하고 진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거주 공간인 도시 문제에 있어 단절된 관계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관광지로 만드는 현상, 공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다가선 커뮤니티아트가 미적 취향을 단선화 시키고 전체화시키는⁹⁾ 문제 인식에서부터 극복될 수 있다.

로버타 그라츠는 우리 가족, 가축이나 반려동물의 생명을 지키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시 환경 또한 지키고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나설 때 진정한 의미의 마을 살림과 도시 살림이 가능해진다(정석, 2013: 217). 깨끗한 도시, 편리한 도시, 화려한 도시의 취향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의 역사성을 통해 지역성과 정체성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의식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도시라는 환경은 개인의 역사와 삶에 관계하고 공동체의 역사성과 상호작용한다. 거주 공간인 도시의 살림에 있어서 커뮤니티댄스는 도시와 마을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을 인식하는 관계 계승의 기능과 역사성을 ‘지금 여기’의 문제로 발견하고 개인과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여야

9) 김월식(2012)은 몇 해 전부터인가 그 유통 경로를 알 수 없는 공공과 미술, 디자인의 만남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벽화라는 미술은 지역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환경 재생사업에 투입되고, 재래시장은 똑같은 아케이드라는 지붕을 갖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공공의 현장에 또는 지역의 커뮤니티 안까지 파고들은 획일화된 미적 감수성들은 대중의 미적 취향을 단선화 시키고 전체화하는데 일조 하였다고 본다.

할 가치와 의식의 전환을 꾀하는 문화 공유의 역할을 지닌다. 의식의 전환을 실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커뮤니티댄스의 예술적 경험을 통해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날 도시 문제는 소통과 상호작용의 단절, 즉 문화적 관계성의 단절의 문제이므로 마을의 신화를 살리는 과정을 통해 관계 계승으로서의 문화 공유를 실천할 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관계 계승은 마을의 역사성을 공유하는 것이고 문화 공유는 공동체성을 되살리는 노력이며 커뮤니티댄스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 마을의 외형적 모습이 각기 다른 것과 동시에 마을의 역사성이 다른 것은 그들의 문화에서 만들어낸 전통성에 기인한다. 전통이라는 것은 가변적이다. 과거의 것을 유지하거나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실존적 주체들이 소통하고 공유된 의미를 재생산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의 역사성과 공동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과정이고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와 수평적 소통이며 현재에 투영되어 있는 전통과 역사에 대한 관계 계승이다. 마을의 공간/장소가 옛 모습을 잃고 변화,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승되어 오는 기억과 역사적 자료 등을 통해 의미는 복원된다. 예술이 갖는 힘은 인간의 잠재적 능력과 상상력의 발현이다. 예술적 상상은 지각¹⁰⁾된 정보를 이미지화시키는 것에 작용한다. 상상은 가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의 관계와 조합을 통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적 상상력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행위의 과정에서 드러나므로 예술 형태의 무용 체험을 통해 각 지역의 도시와 인간의 관계는 계승될 수 있다.

오늘 날 도시와 마을의 거주자들은 자신의 삶의 공간이 탈영토화 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경제적 위계, 사회적 문제로 부터 낮은 위치에 처해있는 거주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역사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더라도 자본의 힘의 논리에 따라 사회적 논쟁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거주자들이 사회적 관계와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기도 전에 미적 취향이 잠식당하고 태도가 패턴화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커뮤니티댄스는 공간적으로는 상하좌우의 다양한 지점을 연결해 주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여름과 겨울, 봄과 가을의 여러 시점을 관계 맺도록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관계들의 그물망에서 자신을 깨닫고 행복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커뮤니티댄스는 상상력에 기반한다. 왜냐하면 삶에서 현실은 언제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10) 단순히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의 지각이 아닌 감각적 인지를 통해 체화된 경험적 사실로부터 발견되는 지각이다.

새로운 세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실과 다른 미래에 대한 상상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관계망을 조밀하게 만들고 관계성을 계승하는 문제는 개인과 공동체가 서 있는 현재의 장소성에서만 되찾을 수 있다.

공간space과 장소place는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계를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공간은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철학적으로는 실증주의의 배경 하에 탄생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반면에 장소는 그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가 신념이 내재되어 있는 곳을 의미한다. 장소는 주관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현상학, 실존주의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박승규, 2011:152).

개인과 공동체의 신념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와 마을 공간 내에서의 장소의 의미인 장소성은 집단의 기억과 개인의 기억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억의 되살림은 예술적 상상을 기반으로 한 예술체험의 참여와 사회적 문제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거주 문화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댄스는 도시와 마을의 장소성을 바탕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시점의 역사성을 돌이켜 보고 공간적으로 예술 체험에 참여하는 실천으로서의 문화 공유를 통해 공동체성을 되살리는 기능을 하게 된다. 즉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근대성과 현대성에 의해 잠식된 거주자들의 의식과 행복함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커뮤니티댄스의 실행 전략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식의 차이가 빚어내는 재개발, 원도심 개발, 관광지 개발 등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주자들이 그들의 문화를 스스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둘 수 있다. 즉, 거주자들의 관계 계승으로서의 역사성과 문화 공유를 통한 공동체성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의 무용의 형태는 거주 문화를 ① 탐색하고 ② 기억하며 ③ 구성하고 ④ 표현하는 과정으로 참가자들의 문화적 기억과 흔적에 연결망을 구축하는 예술형태의 무용 체험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무용의 역할은 장소 속에 있는 기억을 바탕으로 기억된 이유에 대해 움직임으로 탐색해 보는 것이다. 때로는 장소를 통해 일상의 기억을 돌이켜 보기도 하고, 장소 속에 남겨진 역사적 결과물을 생각해 봄으로서 마을의 역사성을 알게 되고, 서로 다른 마을의 기억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도 하고, ‘지금, 여기’의 마을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 찾기를 되살릴 수 있다.

커뮤니티댄스 구조의 첫 단계인 커뮤니티에 대한 접촉과 탐색은 여러 형태¹¹⁾로 진행될 수 있으나 거주 공간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댄스에서는 지리적 커뮤니티가 그 대상

이 될 것이다. 참가자들의 예술적 체험은 상호작용 속에서 대칭적인 구조로 형성되어야 하므로 그들의 신화가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리적 커뮤니티의 문화적 성격과 특징, 역사적 흔적, 개인과 집단의 기억에 대한 탐색이 수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커뮤니티댄스는 사회적 관심을 공유하고 공동체가 무용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한혜리, 2012:16)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대의식은 관계론적, 생태론적 세계관¹²⁾을 지향하고 있다.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문제는 관계 계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스템적 사고 안에서 형성될 수 있다. 관계망은 개인과 공동체의 실존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단초이다. 그러므로 문화를 공유하고 관계를 계승한다는 것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신념으로 다듬어진 커뮤니티의 실존적 모습을 되살리는 것이다.

Rifkin, J은 21세기 문명을 접속의 시대the age of access라는 화두로 정리한다. 접속은 문화생산이 지배하는 시대, 마지막 자본주의 시대를 관통하는 원리로 문화적 자원과 체험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다(송해룡 외, 2006:29).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즉시적 만족, 행복, 즐거움을 위해 삶의 공간을 일시적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순히 취향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욕망의 논리가 점유한 공간의 신화를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 못지않게 위험한 사회 현상으로 도시와 마을 공간이 일시적 체험을 위한 곳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적 영역으로 흡수된 커뮤니티아트의 단면들은 공간을 즉시적인 만족을 위한 체험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따라서 거주 문화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댄스의 네트워크 방식인 결과는 개인의 성취감이나 만족감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용이 사회와 네트워킹하는 이유는 참여 커뮤니티의 예술적 체험을 통한 문화변용 혹은 문화 생산과 유통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뒷받침 될 때 커뮤니티댄스는 거주지 문화의 관계 계승과 공유의 가치를 실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진화는 생물학적 진화와 더불어 문화적 진화로 거듭된다. 도시 사회의 발전은 탈영토화를 가속화시켰고 제도적으로 지리적으로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성을 희석시켰다. 도시의 정체성이 결여된 채 공간은 도시의 요소에 따라 확장되거나 재구성되기만 할 뿐, 그 과정에서 실존적 존재인 거주자들의 의식과 취향, 신화는 중요한 가치로 의식되지 못했다. 따라서 도시공동체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은 시간의 시점의 역사성으로

11) 지리적 커뮤니티(이웃, 지역), 사회의 관심, 문화적 커뮤니티, 공공단체 및 공공시설의 커뮤니티, 장애인 커뮤니티, 연령별 커뮤니티, 성별 커뮤니티 등이 있다(김화숙외, 2012: 14).

12) 유명만(2006:22)에 의해 사용된 용어

부터 비롯되는 관계 계승을 기반으로, 지리적 커뮤니티의 시각에서 시작되는 문화 공유의 관계망 즉, 공간이라는 장소성의 기억과 흔적으로부터 공동체성을 되찾는 커뮤니티댄스의 기능과 조우해야 하는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근대성의 가치와 현대성의 맹목성이 만들어낸 거주 공간으로서의 도시와 사회의 문제에 주목했다. 거대한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세계화, 지구화의 움직임은 인간의 삶의 공간을 탈영토화시켰고 공통된 도시 요소를 바탕으로 확장하거나 지위가면서 거대한 도시의 성장을 촉진했다. 도시와 마을을 점유하고 있는 실존적 존재인 마을공동체의 취향과 의식은 도외시 된 채 마을의 신화가 희석된 것이다. 사적 욕망이 지배한 도시 공간에서 거주자들의 역사성과 공동체의 정체성은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되지 못했다. 이는 곧 공간과 인간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문화적 관계성의 단절의 문제는 마을의 신화를 되살리는 과정을 통해 관계 계승으로서의 문화 공유를 실천할 때 해결될 수 있다. 관계 계승은 마을의 역사성을 공유하는 것이고 문화 공유는 공동체성을 되살리는 노력이다.

따라서 거주지 문화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댄스는 도시와 마을의 장소성을 바탕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시점의 의미를 돌이켜 보고 공간적으로 의미 체험으로서 문화 공유를 통해 공동체성을 되살리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근대성과 현대성에 의해 잠식된 거주자들의 의식과 행복감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도시공동체의 회복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신념으로 다듬어진 커뮤니티의 실존적 모습을 되살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댄스의 참가자 혹은 대상은 지리적 커뮤니티가 될 것이며, 무용의 형태는 거주 문화를 ① 탐색하고 ② 기억하며 ③ 구성하고 ④ 표현하는 과정으로 참가자들의 문화적 기억과 흔적에 연결망을 구축하는 예술형태의 무용 체험으로 구성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무용의 역할은 장소 속에 있는 기억을 바탕으로 기억된 이유에 대해 움직임으로 탐색해 보는 것이다.

무용이 사회와 네트워킹 하는 이유는 커뮤니티의 예술적 체험을 통한 문화변용 혹은

문화 생산과 유통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뒷받침 될 때 커뮤니티댄스는 거주지 문화의 관계 계승과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참고문헌

- 김화숙, 류분순, 신은경, 신경희, 오레지나, 임혜자, 한혜리(2013). **무용교육론**, 한학문화
- 김화숙, 전해리, 한혜리, 오레지나(2012), **Community Dance**, 한학문화.
- 김용석(2010), **문화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푸른숲.
- 김월식(2012), “개인의 행복을 꿈꾸는 차이의 연대”, **신화 또는 현실 : 정책, 예술가, 커뮤니티**, 2012.11.1, 서울문화재단포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 박승규(2011), **일상의 지리학-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묻다**, 책세상.
- 박이문(2009), **통합의 인문학**, 지와 사랑.
- 유명만(2006), **지식생태학**, 삼성경제연구소.
- 서정렬, 김현아(2008), **도시는 브랜드다 : 랜드마크에서 퓨처마크로**, 삼성경제연구소.
- 송해룡, 김원제, 조항민(2006), **대한민국은 지금 체험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석(2013), **나는 뛰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효형출판.
- 한혜리(2012), “대학무용교육과 커뮤니티 서비스 학습의 결합 모형 연구-대학 커뮤니티댄스 교육의 학습 설계 기준”,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3집 2호**, 1-18.
- Alexander, Victoria, D.(2003), *sociology of the Arts*, 최샛별, 한준, 김은하(역, 2010), **예술 사회학**, (주)살림출판사.
- Rothe, B., Mordillanr, G.(2011), *Il n'y a pas d'alternative*, 허보미(역, 2013), **대안은 없다**. 함께 읽는 책.
- Dewey, J, *Liberalism and Social Action*, 김진희(역, 2011),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 책세상.
- Osborne Edward, W.(1978), *On Human Nature*, 이한음(역, 2011),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사이언스북스.
- Young, Robert J.C.(2003), *Postcolonialism : A Very Short Introduction*, 김용규(역, 2013), **아래로부터의 포스트식민주의**, 현암사.